

# 반려동물 놀이터가 ‘혐오시설’ 인가요?

### 무안군, 남악 주민 반발에 부지 옮겨 오룡리에 이달말 착공 주민들 “개물림 사고 우려에 소음·냄새” 설치 반대 잇따라 군 “학교와 수 백 미터 떨어져 안전해” 이달 중 주민설명회

무안군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을 재추진 하자 주민들이 또다시 ‘혐오시설’이라며 부지 이전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무안군은 일로읍 오룡리 470번지 공공하수종말 처리장 인근에 5400㎡ 규모로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반려견이 목줄을 차지 않고 견주와 함께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공원 시설이다. 무안군은 조성 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과 군

비 2억 8000만원 등 총 7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군은 이달 중 주민설명회를 열고 이달 말께 착공, 오는 7월 중 반려동물놀이터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무안군에는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를 반대한다는 민원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무안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는 최근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를 반대한다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들 게시글에는 “반려견에게 목줄을 안 채우는 견주에 의해 개물림 사고가 날 수 있다”, “인접 100여m 거리에 주거 시설이 들어서고, 인근에 초등학교도 2곳 들어설 예정이라 개물림 사고와 짖는 소리 등 소음, 분변, 냄새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등 주장이 담겼다. 한 민원인은 “한해에도 2000명이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 가족들이 거주하는 환경이 조금이라도 안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무안군은 안전이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도시공원에 근거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례 하나만을 가지고 놀이터를 조성하는만큼 법적 강제성이 없는 관리규정이 제대로 지켜질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군은 지난해 주민 반대로 부지를 변경했음에도 다시 같은 반발이 나오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공약으로 내세우기 이전부터 반

려동물놀이터에 대한 요구가 많았는데, 막상 지으려고 보니 일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나서 곤란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무안군 내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주민 인식조사를 한 결과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찬성 61%, 반대 39%로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는 것이다. 또한 현 부지는 6월 입주 예정 아파트와 600m 떨어져 있고, 초등학교 예정 부지와도 400m 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놀이터가 조성되면 안전요원 3~5명을 배치해 소형견·대형견 간 활동 공간을 분리시키고 목줄 착용, 배변 문제 등을 통제하는 한편, 공격성이 강한 개는 입장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인근 지역 반려견의 활동 공간이 한 곳에 집중되므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

두에게 좋은 공간이 될 것”이라며 “인근 주민이 반려견을 데리고 반려동물놀이터까지 왔다갔다 하는 길에 개물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극히 인접한 아파트의 주민이 아닌 이상 차를 타고 오가는 이들이 많으므로 우려하는 만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무안군은 남악리 2612-1번지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신설할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10월 착공까지 했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혀 착공 한 달 만에 공사를 중지시키고 부지를 현 위치로 옮겼다. 당시 남악리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는 ‘인근 초·중학교 어린이 등·학교사 개물림 사고 등 안전에 위협이 된다’, ‘반려견으로 인한 질병, 전염병으로 인근 아파트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소음과 악취로 인해 집값이 떨어진다’는 등 지적이 나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벚꽃 스타팅 1일 광주시 북구 우치공원 산책로 벚나무 군락지에 벚꽃이 만개해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전남 오늘 저녁부터 ‘요란한 비’

### 3일까지 돌풍·번개 동반 20~60mm... 일교차 커 건강 유의를

광주·전남지역에 2일 저녁부터 ‘봄바’가 또 내리겠다. 비가 내림에 따라 저녁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기상청은 “건강에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일 오후부터 중국에서 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오후 늦게부터 비가 내리겠다”고 1일 예보했다. 이번 비는 3일 밤까지 이어지겠으며 20~60mm의 강수량을 기록하겠다. 전남 남해안 일부지역과 지리산 산간지역에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시간당 10~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비가 내림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다. 완연한 봄날씨가 된 데 따라 낮 기온이 20도 이상

오르지만, 저녁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겠다. 광주·전남 2일 낮 최고기온은 18~23도로 분포하겠고, 3일 아침 최저기온은 13~14도, 낮 최고기온은 15~18도를 보이겠다.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겠다. 3일 새벽 전남의 해안가에는 초속 20m 이상의 바람이 불겠다. 서해남부바깥면바다와 서해남부남쪽안쪽면바다에는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풍 및 높은 물결로 항공기 및 선박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항공·해상 교통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광주 신가2중·일곡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공모 선정

### 체육관·희망이음터 등 추진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의 ‘2024년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사업’에 신가2중학교(가칭)와 일곡중학교가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학교와 지역의 필요에 따라 학교 시설과 함께 교육·돌봄, 문화, 체육 시설 등을 마련한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신가2중학교에는 청소년문화센터 및 체육관 사업을, 일곡중학교에는 희망이음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가2중학교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광산구 신가택지 재개발구역 내에 2028년 3월 개교 예정인 신설학교에 국비 17억원 등 58억원을 투입해 청소년문화센터와 체육관을 건립한다. 북구 일곡중학교 희망이음터 사업은 국비 10억원 등 35억원을 들여 복합커뮤니티 교실과 마을온실, 맨발 산책로 등을 조성한다. 교육청은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사전기획, 설계를 거쳐 시설 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정은 광주시교육감은 “2027년까지 매년 3600억원을 지원하는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에 많은 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자치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완도서 전동휠체어 탄 80대 해상 추락사

### 보호자 없이 운행하다 추락방지시설 사이로 빠진 듯

완도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80대 장애인이 해상으로 추락해 숨졌다. 1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완도군 완도읍 중앙시장 인근 해안가 인도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80대 A씨가 바다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해경은 목격자 진술에 따라 A씨가 추락방지시설(방호벽) 사이로 들어가 바다에 빠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완도 앞바다 만조 시각은 오후 1시 49분으

로, 추락 당시 바닷물이 차 오르고 있어 수심이 깊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완도 거주자로, 거동이 불편하고 장애를 갖고 있어 전동휠체어에 탑승하고 있던 것 전해졌다. 사고 당시 인근에 보호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보호자와 연락을 시도하는 한편 CCTV 등을 확보해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